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2월 9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

‘더 파인트리 관광특구’ 조성건의안 발의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수유2,3동 번 1,2동)이 그동안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우이동 ‘더 파인트리’를 서울시에서 매입해 관광특구 등을 조성해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인에 의원은 2월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특구 조성 등을 주장했다.

강북구 우이동 산 14번지 3호 일대에 위치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지하 4층, 지상 7층 건축물 14개동 규모의 연면적 99,607㎡의 대규모 관광 숙박 및 부대시설로서 2010년 3월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 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북한산 입구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더 파인트리’는 2014년 9월 15일 1차 공매에 나선 후 지금까지 6차 공매에서



유인에 의원

객들이 찾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산 입구에 2년째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특구 등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 유찰되어 현재 6차 입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의원은 수많은 등산객과 방문

북부신문 7면

‘더 파인트리’에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조성 될까?

유인에 의원,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 발의

강북구의회 유인에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 중지 등으로 북한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

콘도미니엄」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강북구 우이동 산 14번지 3호 일대에 위치

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지하 4층, 지상 7층 건축물 14개동 규모의 연면적 99,607㎡의 대규모 관광 숙박 및 부대시설로서 2010년 3월 본 공사가 착공돼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 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북한산 입구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며 “2014년 9월 15일 1차 공매에 나선 후 지금까지 6차 공매

에서도 유찰되어 현재 6차 입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수많은 등산객과 방문객들이 찾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산 입구에 2년째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서울시에서 매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특구 등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유인에 의원.▶



‘더 파인트리’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 발의

유인애 의원 ‘더 파인트리’ 서울시에서 매입해야



강북구의회 유인애의원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 북한산 홍물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을 발의

했다.

유인애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북구 우이동 산 14번지 3호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지하 4층, 지상 7층 건축물 14개 동 규모의 연면적 99,607㎡의 대규모 관광 숙박 및 부대시설로서 2010년 3월 본 공사가 착공되어 공사하던 중 2012년 12

월 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북한산 입구에 홍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9월 15일 1차 공매에 나선 후 지금까지 6차 공매에서도 유찰되어 현재 6차 입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수많은 등산객과 방문객들이 찾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산 입구에 2년째 방치되어 홍물이 되어버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특구 등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조성 건의안 발의



홍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로 2014년 9월 15일 1차 공매에 나선 후 지금까지 6차 공매에서도 유찰돼 현재 6차 입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수많은 등산객과 방문객들이 찾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산 입구에 2년째 방치되어 홍물이 되어버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러한 시급성을 설명하고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서울시에서 매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특구 등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북한산 홍물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등 조성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유인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북구 우이동 산 14번지 3호 일대에 위치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지하 4층, 지상 7층 건축물 14개

동 규모의 연면적 99,607㎡의 대규모 관광 숙박 및 부대시설로서 2010년 3월 본공사가 착공돼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 말 공사 중단, 현재까지 북한산 입구에

유인에 의원, 우이동 '더 파인트리' 관광특구 조성 건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 경제발전 위해 서울시에서 매입 주장

강북구의회 유인에의원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북한산 홍물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특구 조성 건의안을 발의했다.

유인에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북구 우이동 산 14번지 3호 일대에 위치한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은 지하 4층, 지상 7층 건축물 14개동 규모의 연면적 99,607㎡의 대규모 관광 숙박 및 부대시설로서 2010년 3월 본 공사가 착공되



▲ 유인에 의원.

어 공사하던 중 2012년 12월 말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북한산 입구에 홍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4년 9월 15일 1차 공매에 나선 후 지금까지 6차 공매에서도 유찰되어 현재 6차 입찰금액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많은 등산객과 방문객들이 찾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산 입구에 2년째 방치되어 홍물이 되어버린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이동 '더 파인트리 휴양콘도미니엄'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특구 등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